

정과 맛으로 세월을 빚어온 ‘남구의 노포들’

■ 새로 선정된 남구의 백년가게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도 2차 백년가게에 내호냉면, 다다우동, 이흥용 베이커리, 할매팔빙수단팔죽 등 남구의 음식점들이 선정돼 지난 11월 3일 백년가게 현판식을 가졌다. 2차 백년가게 선정 결과 부산에서 5곳이 포함됐는데 이 중 4곳이 남구에서 나왔다. 제도 시행 이래 단일 지역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음식점이 백년가게로 선정되기는 처음이다.

이기대 옛날 팔빙수의 명가

할매팔빙수단팔죽

1976년 용마상회에서 겨울철 잠시 팔았던 국화빵의 앙금 맛이기가 막힌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1997년 아예 상호를 ‘할매팔빙수’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팔빙수와 단팔죽 장사를 시작했다. 좋은 얼음과 얼음골 사과로 만든 잼을 사용하고 특히 정성들어 삶은

팥은 최상의 맛을 자랑한다. 위생적인 오픈주방과 깨끗한 내부시설로 고객 만족도가 높다.

동네 빵집의 살아있는 전설

이흥용 베이커리

1995년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던 작은 빵집을 인수한 뒤 현재 문현동 본점 외에 신세계백화점 등 전국 9개 매장에서 연매출 100여원을 올리고 있는 동네빵집의 살아있는 신화 대접을 받는 베이커리 전문점이다. 이흥용 대표는 2018년 비수도권에서 최초로 제과제빵 부문 대한민국 명장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에 특화된 ‘명란 바게트’, ‘오징어떡볶이’, ‘새우바게트’를 최초로 개발해 특허 등록까지 마쳤다. 도농상생을 위하여 지역의 농수산물들을 이용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자선활동에도 적극적이다.

100년 장사... 밀면의 시조

내호냉면

100년 역사를 간직한 4대째 장사를 하는 냉면·밀면 전문점이다. 밀면의 뿌리가 여기서 시작됐다. 전쟁 전 북한에서 냉면집을 하다 우암동으로 피란 내려와 구호품으로 보급된 밀가루를 냉면처럼 만든 ‘밀면’을 처음 개발했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암동 시장골목에서 토박이처럼 장사를 이어오고 있다. 허영만의 만화 ‘식객’에 소개되면서 전국적 명성을 얻었다. 2018년 부산 최우수 레스토랑 인증도 받았다.

‘맛 없으면 돈 안받는’ 자신감

다다우동

2대째 내려오는 40년 된 우동전문점이다. ‘맛이 없으면 음식값을 받지 않겠다’는 각오로 ‘공짜’를 뜻하는 일본어 ‘다다’로 상호를 정할 만큼

음식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남포동에서 처음 가게를 열었고 이후 범일동으로 옮긴 뒤 10년 전 지금의 도시철도2호선 대연역 부근으로 옮겨와 장사를 하고 있다. 최상의 재료로 우려낸 한국식 육수로 최고의 우동 국물 맛을 자랑한다. 통통한 새우를 튀겨 올려낸 ‘새우튀김우동’이 대표 메뉴이며 우동 외에 메밀국수, 충무김밥에도 자부심이 크다. 가상 음식축제인 2020 코리아맥켓 페스타 초청업체로 선정돼 전국의 맛집들과 경합을 벌이고 있다.

백년가게

*백년가게란
30년 이상(국민 주 천 제 경우 20년) 명맥을 유지

하면서도 오래도록 고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가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영자의 혁신의지, 제품, 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 일자리경제과 ☎607-4476



■ 남구의 백년가게

선정 차수	상호명	업종	위치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2020년 1차	홍림토탈인테리어	종합인테리어	남구 못골로 66-1(대연동)	1982.07.25
	내호냉면	냉면, 밀면	남구 우암변영로26번길 17(우암동)	1993.12.14
	다다우동	우동, 메밀	남구 유엔평화로 7-1(대연동, 1층일부)	1981.10.01
2020년 2차	이흥용베이커리	제과, 제빵	남구 수영로39번길 2-1(문현동)	1995.05.29
	할매팔빙수단팔죽	팔빙수, 단팔죽	남구 용호로90번길 24, 1층 102호(용호동, 삼성아파트 상가동)	1980.03.29

■ 사회적기업 시리즈 ① 대연동 비콥

코로나 타격 불구 ‘착한경영’ 포기 못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을 적당히 썩고 목에서 꿀꺽 넘기는 반면에, 유럽 사람들은 음식을 입에서 오랫동안 음미하기 때문에 목이 하는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대연3동 대동골에 위치한 ‘비콥’은 유럽 여행에서 서구인들의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매력을 느낀 주인공 이성록씨가 프랑스의 아담한 와인 레스토랑(비스트로)를 재현한 곳이다. 이 때문에 비콥은 첫인상은 이국적이다. 사방은 물론이고 천장까지 유리로 덮여 이색미가 물씬하다. 격조 있는 분위기는 스테이크와 와인의 맛을 높

이는 효과를 톡톡히 하고 있다.

비콥은 부산에서 몇 안 되는 유럽풍 레스토랑이지만 낮에는 커피와 베이커리를 파는 카페로 변신한다. 더욱이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응대하는 바리스타들은 발달장애인들. 비콥은 인근의 부산협동커피조합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직업 현장에서 소외·차별받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태어났다. 이들 장애인 바리스타들은 부산협동커피조합에서 커피 전문가로 성장해 사회로 진출한다. 커피 원두도 조합에서 공급받는다.

와인 장사는 낮 시간 카페에서 생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란다. 비콥이 문을 연지는 만 1년. 호기롭게 시작했으나 코로나19라는 복병으로 현재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장애인 고용에 따른 인건비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는 상황. 하지만 비콥의 이성록 대표는 이 보릿고개를 어떻게든 버텨낼 작정이다.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 시작한 일입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착한 경영을 위해 ‘투잡’을 뛰는 비콥에 응원과 격려가 필요해 보인다.



전동킥보드 보행자 사고 형사처벌 엄단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12월 10일부터 개정 법률 적용

- 13세 미만 이용금지
- 1인 외 이용금지
- 인도 주행금지 (위반시 벌칙금 3만원)
- 음주운전 금지 (위반시 벌칙금 3만원)

※ 인도에서 전

동킥보드로 보행

자 사고시 형사

처벌(보험가

입·합의 상한

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내 벌금)

※ 음주운전, 스

쿨존 인명피해

사고·뺑소니

가중처벌



‘솔뚜껑 삼겹살’ 용호동 안강식당 부산시 2020 우수 착한가격업소 선정

용호동 안강식당이 부산시 2020 우수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됐다. 1991년부터 한곳에서 장사를 이어오고 있는 안강식당은 요즘은 보기 드물어진 무쇠 솔뚜껑에 삼겹살 등 생고기를 구워

먹는 곳으로 유명하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점심 특선으로 소고기 국밥 6000원, 정식 6000원, 육개장 7000원 등 양

질의 음식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대표 메뉴 가격을 오랫동안 동결하는 등 고객 이용 만족도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남구 착한가격업소협의회 대표를 겸하는 이기도(사진) 사장은 매년 불우이웃돕기에 참여하고 수년간 통장협의회 및 방위협의회 소속으로서 지역사회 봉사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지역의 다른 업소보다 낮은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가격업소는 현재 부산의 637곳, 남구에는 51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일자리경제과 ☎607-4471

희망 2021 나눔 연말연시 이웃사랑

- 모금기간
2020. 12. 1. ~ 2021. 1. 31. (62일간)
- 주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성금(품) 접수
▷구청 복지정책과, 동행복지센터

터, 방송국에 설치한 이웃돕기성금 접수창구 기탁
● 성금기탁 문의
남구청 복지정책과
(☎607-4861)
동행복지센터



심청이의 마음으로 어르신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남구 주민들의 노인복지서비스 확대요청에 부응하여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

* 낮동안 돌보는

노인주·야간보호서비스

* 가정으로 찾아가는

노인방문요양서비스

-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1~5등급, 인지등급)
-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관련 무료상담

문수노인통합지원센터 ☎ 051)711-1244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 이사장 지원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용호종합사회복지관 | 관장 서은혜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문수노인통합지원센터 | 센터장 이춘성

유료광고